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불안정성이 경계선 성격 성향에 미치는 영향: 단절 및 거절 도식의 매개효과*

김 승 수

원 성 두

김 은 정[†]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불안정성이 경계선 성격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366명의 대학생들(남자 163명, 여자 203명)이 정서적 학대, 정서적 불안정성(ALS-SF), 단절 및 거절 도식(YSQ-SF), 경계선 성격 성향(PAI-BOR)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적 학대는 경계선 성격 성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매개하여 경계선 성격 성향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불안정성도 경계선 성격 성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매개하여 경계선 성격 성향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비교한 결과, 부분매개모형이 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 및 기질적 요인과 경계선 성격 성향 사이의 관계를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경계선 성격 성향의 발달과정을 이해함과 동시에 도식양식(schema mode)을 활용한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후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정서적 학대, 정서적 불안정성, 경계선 성격 성향, 단절 및 거절 도식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일부 내용은 한국임상심리학회
의 2018년 가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은정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
드컵로 206 / Tel : 031-219-2737 / E-mail : kej@ajou.ac.kr

경계선 성격장애는 정서적, 행동적, 대인관계적, 인지적 과정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역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심각한 정신 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2013).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성상 전형적으로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에 발생하며, 10% 정도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이 있으며, 관해된 이후에도 심각한 정신사회적 손상은 몇 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Lieb, Zanarini, Schmahl, Linehan, & Bohus, 2004; Yen et al., 2004).

또한 1차 진료 장면에서 6%의 유병률을 보이며, 정신과 외래 환자 중에서는 10%, 정신과 입원 환자 중에서는 20%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APA, 2013). 이처럼 다른 정신 장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능 문제를 고려할 때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를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상기 장애의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들과 그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질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개인의 단절 및 거절 도식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절 및 거절 도식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된다면, 개인의 도식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심리도식치료를 활용한 치료적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가 발생하는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Linehan(1993)의 경계선 성격장애의 생물-사회 이론(Biosocial theor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부정적인 환경요인과 정서적인 취약성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경계선 성격장애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환경과 기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최근까지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 반응 수준이 낮고 아동의 취약성이 높은 경우, 아동의 경계선 성격장애 특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밝힌 것처럼(Dixon-Gordon, Marsh, Balda, & McQuade, 2020), 생물-사회적 모델을 바탕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생 기제를 밝히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Crystal, 2017).

우선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생에 있어 환경적 차원에서는 Linehan(1993)이 언급한 정서적 비수인 환경(Invalidating Environment)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정서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로 수용 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게다가 비수인적 환경은 극단적인 정서 표현을 간헐적으로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환경은 정서 표현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하며, 부모의 지지가 부재한 채 내적으로만 처리하게 되는 방식으로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Crowell, Beauchaine, & Linehan, 2009). 그 결과 아동은 정서적 반응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류하고, 명명하고, 조절하고, 감내해야 하는지 학습하지 못하고, 대신에 정서적 억제와 극단적인 정서적 불안정성 사이에서 동요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Crowell et al., 2009).

이처럼 정서적 학대를 포함하는 비수인적 환경에 노출되는 아동은 자신의 내적 경험을 표현할 때 쉽게 무시와 처벌을 당하며, 이후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 Gratz 등(2008)의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다른 성격장애 환자에 비해 높은 비율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경험이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의 강도를 높이며, 자살시도 행동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Soloff, Lynch, & Kelly, 2002).

한편, 성격장애의 기질적인 차원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정서적인 불안정성(emotional instability)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정서적 상태가 탄력적으로 발생하여 점차 불규칙적이고 강렬해지는 경향으로 정의된다(Tragesser, Solhan, Schwartz-Mette, & Trull, 2007). 또한 정서적 불안정성은 정서에 있어서 예상치 못하고, 강렬하며, 빠른 변화로도 언급된다(Cole, Llera, & Pemberton, 2009에서 재인용; Siever & Davis, 1991).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다른 성격장애를 구별해주는 핵심 특징으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Cole et al., 2009; Zanarini, Frankenburg, Hennen, & Silk, 2003), 건강한 통제 집단이나 우울 집단에 비해서도 경계선 성격장애에 해당하는 집단에서 더 높은 정서적인 불안정성을 보고한 바가 있다(Ebner-Priemer et al, 2007, Trull et al, 2008).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과 정서적인 기질이 어떻게 경계선 성격을 발생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우리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생 과정에 대한 기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 연구에서 부적응적 도식이 경계선 성격장애가 발생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임을 밝힌 결과를 통해 과정 변인으로 도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초기 부적응

적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es: EMS)이란 내적 현상으로서, 기억, 정서, 인지, 신체감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스로 개념화하는 방식과 상대방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Dobson, 2009). 또한 이는 삶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만연하게 나타나는 자기패배적인 패턴이며, 일생에 걸쳐 정교해지고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도식치료의 초점이 되기도 한다(Dobson, 2009). 최근에는 부적응적인 도식 중에서도 단절 및 거절 도식이 경계선 성격장애가 발생하는데 특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Cohen, Tanis, Ardalán, Yaseen, & Galyner, 2016; Gilbert, & Daffern, 2013).

본래 Young, Klosko와 Weishaar(2003)은 다섯 가지의 도식 영역인 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손상된 한계, 타인 중심성, 과잉경계 및 억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 단절 및 거절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기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안정감, 수용, 존중, 돌봄, 공감 등이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Young et al., 2003). 더욱이 Gilbert와 Daffern(2013)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도식과 성격장애 심각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단절과 거절 영역이 경계선 성격장애 심각도의 고유한 예측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Cohen 등(2016)은 부적응적인 도식이 주요 기분장애들보다 경계선 성격장애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다. 더 나아가 상기 연구에서는 Young 등(2003)이 제시한 다섯 가지 도식 영역 중에 네 가지와 강하게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도 단절 및 거절 도식이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에 있어서 가장 높은 민감도와 특

이도를 보였다는 결과를 통해 도식 영역 중에서도 단절 및 거절 도식이 경계선 성격장애 발생에 특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계선 성격장애가 발생하는 데 고려해볼 수 있었던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불안정성이 단절 및 거절 도식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시사되는 바,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이들 간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Young(1990)은 외상 또는 고통을 겪는 정서적인 경험들이 단절 및 거절 도식에 포함되는 하위 영역, 즉 유기/불안정과 불신/학대 도식, 정서적 결핍과 결합/수치심 등의 도식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다른 경험적인 연구도 이를 지지하는데, Berstein(2002)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경험이 있는 여성은 결합/수치심 도식과 사회적 고립/소외 도식을 발달시키기 쉽다고 보았으며, Wright, Crawford와 Del Castillo(200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가 부적응적 도식을 매개로 심리적인 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더욱이 Calvete(2014)의 종단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정서적인 불안정성과 단절 및 도식 간의 관계의 경우, MacKinnon과 Pies(2006)의 연구에서 유전적인 특질로써 정서적 불안정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기질적인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도식의 형성과 관계가 깊은 부정적인 대상관계나 원시적인 자아 방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Mairet, Boag와 Warburton(2014)의 연구에서도 부적응적 도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불안정한 기질을 제시하며, 특히 단절 및 거절 도식

과 불안정한 기질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밝힌 바가 있다.

종합해 보면,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불안정성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생에 고유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 사이에 개별적인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불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연구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각각의 요인들이 경계선 성격장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 그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 성향 발생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불안정성, 단절 및 거절 도식의 관계를 살펴보고, 경계선 성격 성향 발생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경계선 성격 성향이 있는 개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추후 경계선 성격 성향의 치료적 개입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정서적 학대 및 정서적 불안정성과 경계선 성격 성향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모형은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으로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모형 비교를 위해 경쟁모형을 세웠다. 정서적으로 지지적이지 못한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발생을 이끌어 낸다는 Speidel, Valentino, McDonnell, Cummings와 Fondren (2019)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가 정서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경쟁모형을 세웠으며, 이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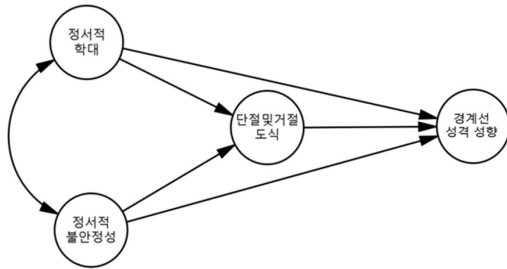


그림 1. 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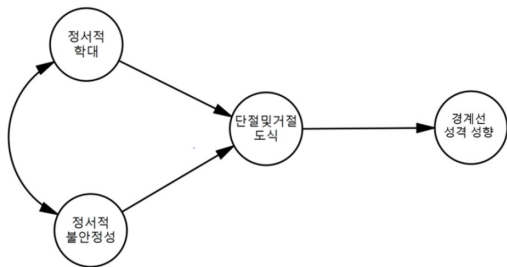


그림 2. 완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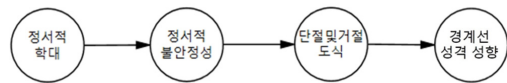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학교 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 번호:201709-HB-006)을 받아 재학 중인 대학생 46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응답 및 무응답 자료를 제외한 36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성별은 남자 163명(44.5%), 여자203명(55.5%)이었으

며, 평균 연령은 21.68(SD=2.29)였다.

측정 도구

정서적 학대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고성혜(1992)가 제작한 아동학대 척도에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24개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동기, 결과, 행동 차원으로 분류된다. 동기 영역에서는 부모가 일관성 없이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포함하고, 결과 영역은 자녀가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며, 행동 영역은 자녀에게 모욕감과 불안감을 주는 구체적인 행동과 언어적 표현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18세 이전에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표시하였다.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한 번도 없었음=1 ~ 자주 경험함=4),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정서적 학대 경향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성혜(1992)가 보고한 정서적 학대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에 해당하였다.

정서적 불안정성

정서적 불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황성훈(2015)이 번안 및 타당화 한 한국판 정서적 불안정성 척도-단축판(Affective Lability Scale-Short Form: 이하 한국판 ALS-SF)을 사용하였다. ALS-SF 척도는 본래 Harvey, Greenberg와 Serper(1989)가 기분이 보통에서 우울로, 불안으로, 들뜸으로, 분노로 변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54 문항척도를 Oliver와 Simons

(2004)가 18문항으로 축약한 단축판 척도이다. 이 척도는 ‘불안/우울’, ‘우울/들뜸’, ‘분노’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고(Oliver & Simons, 2004), 문항은 4점 척도로(전혀 해당되지 않는다=1 ~ 매우 해당된다=4) 평가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판 정서적 불안정성 척도-단축판도 Oliver와 Simons(2004)가 제시한 척도와 동일하게 18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척도로 평가된다.

황성훈(2105)이 보고한 정서적 불안정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다.

단절 및 거절 도식

단절 및 거절 영역의 초기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990)이 고안하고, Barnoff, Oei, Cho와 Kwon(2006)이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검증한 단축판 초기 부적응 도식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s-Short Form: YSQ-SF)에서 단절 및 거절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단절 및 거절 영역은 정서적 결핍,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사회적 고립, 결합/수치심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의 문항은 6점 척도로(전혀 동의 안함=1 ~ 전적으로 동의함=6) 평가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rnoff 등(2006)의 연구에서 단절 및 거절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8 ~ .90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였다.

경계선 성격 성향

경계선 성격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Morey(1991)가 성인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객관적 자기 보고형 질문지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를 홍상황과 김영환(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홍상황 등(1998)의 연구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성이 매우 낮다고 언급한 한 문항을 본 연구에서도 제외하고 총 2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은 4점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0 ~ 매우 그렇다=3) 평가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계선 성격 성향에 해당하는 문항은 기분의 불안정성, 정체감 문제, 부정적 관계, 자기 손상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홍상황 등(1998)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84였고, 본 연구의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다.

통계적 분석

정서적 학대, 정서적 불안정성, 단절 및 거절 도식, 경계선 성격 성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모형과 연구모형 검증을 수행하고, 매개가설을 검증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of Error Approximation) 지수를 사용하였다. CFI, TLI, NFI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90 이상일 때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RMSEA는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 .05~.08 사이일 때 양호한 적합도, .08~.10 사이일 때 보통의 적합도, .10 이상일

때 부적절한 적합도로 여길 수 있다(Browne, Cudeck, Bollen, & Long, 1993).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PSS를 이용하여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고, 각 변인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AMOS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변인들이 해당하는 잠재 변인들을 잘 측정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부분 매개 모형과 완전 매개 모형 중 더 간명한 모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차이검증(Chi-Square Difference Test, CSDT)을 실시하였다. 매개 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Bias Corrected(BC) Bootstrap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Bootstrap 검증 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Preacher & Hayes, 2008).

마지막으로 채택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서로 포함관계에 있지 않은 모형(non-nested model)이므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ECVI(Expected Cross Validation Index)를 사용하여 두 모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AIC, BIC, ECVI 값은 작을수록 간명하고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89). 특히 BIC 값은 두 모형 간 차이가 2 이하일 경우 약한 차이, 2~6이면 실증적 차이, 6~10이면 큰 차이, 10 이상의 값일 경우 매우 큰 차이로 간주한다(Raftery, 1995).

결 과

기술통계

불성실한 응답과 무응답 자료를 제외하한 남자 163명(44.5%), 여자203명(55.5%), 총 36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핵심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경계선 성격 성향은 정서적 학대, 정서적 불안정, 단절 및 거절 도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45, p < .01$; $r = .65, p < .01$; $r = .60, p < .01$. 또한 정서적 학대는 정서적 불안정성, 단절 및 거절 도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43, p < .01$; $r = .46, p < .01$.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단절 및 거절 도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62, p < .01$.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모든 변

표 1.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 상관계수

	1	2	3	4
정서적 학대	-	-	-	-
정서적 불안정성	.43**	-	-	-
단절 및 거절 도식	.46**	.62**	-	-
경계선 성격 성향	.45**	.65**	.60**	-

** $p < .01$, * $p < .05$

주. 1=정서적 학대, 2=정서적 불안정성, 3=단절 및 거절 도식, 4=경계선 성격 성향

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시행하였다. 측정모형에는 정서적 학대, 정서적 불안정성, 단절 및 거절 도식, 경계선 성격 성향 총 4개의 잠재변인이 포함되었다.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정서적 학대, 정서적 불안정성, 단절 및 거절 도식, 경계선 성격 성향을 포함하는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71) = 181.991, p < .001, CFI = .97, TLI$

$= .96, NFI = .96, RMSEA = .065$. 측정모형의 상관 및 요인 부하량, 분산 등은 그림 4에 제시되었다.

연구모형 검증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면,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hi^2(71) = 181.991, p < .001, CFI = .97, TLI = .96, NFI = .96, RMSEA = .065$,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hi^2(73) = 279.069, p < .001, CFI = .95, TLI = .94, NFI = .94, RMSEA = .086$, 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대적으로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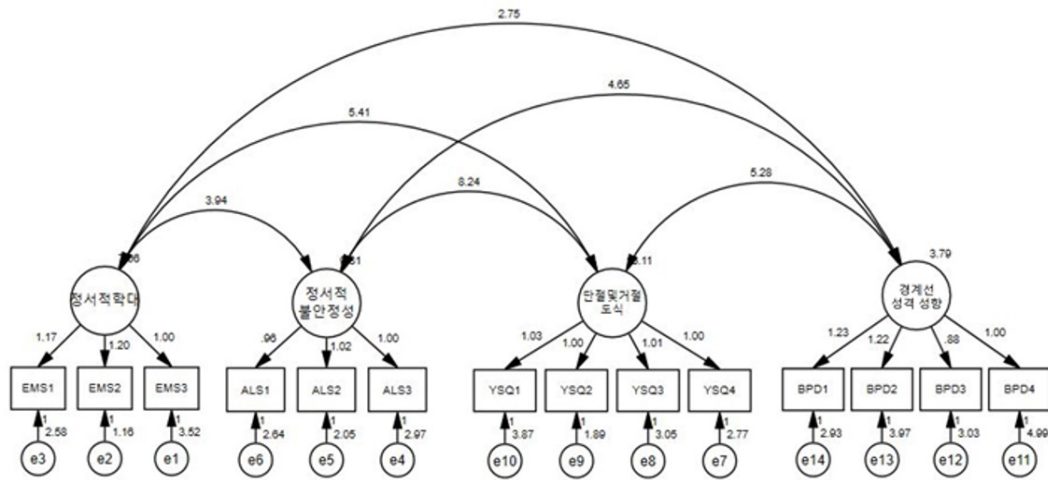


그림 4. 측정모형

표 2. 각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NFI	RMSEA	AIC	BIC	ECVI
부분	181.991	71	.97	.96	.96	.06	249.99	382.68	.68
완전	279.069	73	.95	.94	.94	.08	334.06	458.95	.91
경쟁	297.462	74	.94	.93	.93	.09	359.46	480.44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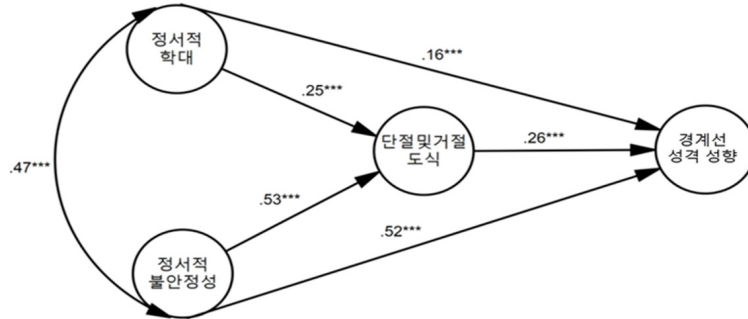


그림 5. 부분매개 경로계수

표 3. 부분매개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정서적 학대 → 단절 및 거절 도식	.327	.254	.063	5.191***
정서적 불안정성 → 단절 및 거절 도식	.686	.535	.066	10.340***
단절 및 거절 도식 → 경계선 성격 성향	.124	.255	.029	4.205***
정서적 학대 → 경계선 성격 성향	.098	.157	.032	3.092***
정서적 불안정성 → 경계선 성격 성향	.324	.521	.042	7.655***

*** $p < .001$, ** $p < .01$, * $p < .05$

제시되었다. 카이자승 차이검증 결과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이 채택되었다, $CSDT(df=2) = 115.471, p < .005$. 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는 각각 그림 5와 표 3에 제시되었다.

부분매개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채택된 부분매개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학대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거쳐 경계선 성격 성향에 이르는 간접효과(M1)는

표 4. 각 매개효과와 간접효과 간 차이검증

Effect	Estimate	S.E	95% CI	
			lower 95%	upper 95%
M1	.040	.041	.018	.074
M2	.085	.025	.036	.135

M1. 정서적 학대→단절 및 거절 도식→경계선 성격 성향
M2. 정서적 불안정성→단절 및 거절 도식→경계선 성격 성향

95% BC 신뢰구간(.018 - .074)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불안정성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거쳐 경계선 성격 성향에 이르는 간접효과(M2)도 95% BC 신뢰구간(.036 - .135)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은 표 4에 제시되어있다.

연구모형의 경쟁모형의 비교 검증

연구모형1, 2와 경쟁모형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 1과 2의 AIC, BIC, ECVI 값이 경쟁모형의 값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보다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이론적 모형 및 경험적 근거에 기초해 정서적 학대 및 정서적 불안정성이 경계선 성격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정서적 학대와 경계선 성격 성향 간의 관계를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부분 매개하였다. 둘째, 정서적 불안정성과 경계선 성격 성향 간의 관계를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부분 매개하였다. 즉, 정서적 학대 및 정서적 불안정성은 단절 및 거절 도식을 통하여 경계선 성격 성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정서적 학대 및 정서적 불안정성과 경계선 성격 성향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즉,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이 단절 및 거절 도식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도식은 경계선 성격 성향을 형성하는데 유의미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고 기질적으로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쉽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부적응적인 자기 및 타인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적응적인 도식은 대인관계의 손상과 자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정서적 학대가 부적응적 도식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인 고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Wright et al., 2009)와 부적응적 도식이 성격장애가 형성되는 경로에 있다고 주장한 Beck, Freeman과 Davis(2015) 그리고 Young(1990)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의 고유한 예측요인임을 밝힌 연구들(Cohen et al., 2016; Gilbert & Daffern, 2013; Young et al., 2003)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불안정성이 각각 경계선 성격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학대가 경계선 성격장애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Bornovalova et al., 2013; Frias, Palma, Farriols, Gonzalez, & Horta, 2017; Kuo, Khoury, Metcalfe, Fitzpatrick, & Goodwill, 2015; Westbrook & Berenbaum, 2017)

과 정서적 불안정성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Koenigsberg et al., 2001; Tragesser et al., 2007; Yen et al., 2004)과 일관되게 환경적 변인 및 기질적 변인이 경계선 성격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경계선 성격장애와 개별적인 관련성만 검증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변인인 정서적 학대와 기질적 변인인 정서적 불안정성의 상호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여 경계선 성격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경계선 성격 성향이 발생하는 기제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환경적, 기질적, 인지적 변인을 포함하여 경계선 성격장애에 미치는 기제를 통합적으로 밝혔다는 의의를 갖는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과거에도 진행된 바 있으나, 환경적 요인과 기질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기보다는 각각의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따로 검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상기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 경계선 성격 성향과 관련하여, 초기 부적응적 도식 중에서도 단절 및 거절 도식영역을 특징적으로 살펴보고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기 부적응적 도식에는 다양한 하위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 연구들은 이러한 영역을 구분하지 않은 채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Cohen 등(2016)의 연구에서 부적응적 도식 영역들 중에서도 단절 및 거절 도식이 경계선 성격장애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를 검증함으로써 과거 연구를 지지하고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 번째, Young 등(2003)의 심리도식치료가 경계선 성격장애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치료라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 Giesen-Bloo 등(2006)의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대상으로 심리도식치료와 전이중심치료를 비교한 결과, 심리도식치료가 전이중심치료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음을 밝힌 바가 있다. 이러한 심리도식치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지적 기법은 아래와 같다(Young et al., 2003). 먼저 자신의 심리도식과 대처방식에 대해 타당한지를 검증하고, 이러한 심리도식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다(Young et al., 2003). 이후 상기 심리도식과 건강한 성인 양식을 서로 검토하고 비교하며, 이러한 심리도식을 대처할 수 있는 카드와 심리도식일지를 써본다(Young et al., 2003). 이 과정에서 치료자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통해 부적응적인 심리도식을 유지하게 하는 요소들을 반박하며, 하향질문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도식에 접근한다(Young et al., 2003). 또한 치료자와 함께 심리도식 사례개념화를 작성하며,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이 가진 도식과 양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Young et al., 2003).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실시된 결과이기 때문에 연령, 교육 수준, 정신과적 질환 등 다른 요소들을 함께 통제하여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경계선 성격 성향

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임상 현장에서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까지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홍상황 등(1998)은 성격장애와 관련 있는 성격 성향은 임상집단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임상 집단에서도 존재하며, 경계선 성격장애의 유병률은 성인기 초기에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완전한 증후군으로 발전하기 전에 해당하는 경계선 성격 성향을 지닌 성인기 초기에 있는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 성향을 보이는 개인들이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만큼 기능상의 심각한 손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Beck et al., 2015) 임상 집단 뿐만 아니라 비임상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한 치료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변인들 간의 인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물론 심리적 변인을 확인함에 있어 자기 보고식 자료도 측정치로써 가치가 있으나, 연구 대상자들이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편향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호자와 같은 제 3자의 객관적인 관찰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객관적인 자

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상황,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1), 259-271.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3), 161-177
- 황성훈 (2015). 한국판 정서적 불안정성 척도-단축판의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3), 625-64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ranoff, J., Oei, T. P., Cho, S. H., & Kwon, S. (2006). Factor structure and internal consistency of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in Korean and Australian sampl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3(1-3), 133-140.
- Beck, A. T., Davis, D. D., & Freeman, A. (2015).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 Bernstein, D. P. (2002).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in patients with histories of emotional abuse or neglect. *Psychiatric Annals*, 32(10), 618-628.
- Bornovalova, M. A., Huibregtse, B. M., Hicks, Kwon B. M., Keyes, M., McGue, M.,

- &Iacono, W. (2013). Tests of a direct effect of childhood abuse on adult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A longitudinal discordant twin desig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1), 180.
- Browne, M. W., & Cudeck, R. (1989). Single sample cross-validation indices for covariance struct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4*(4), 445-455.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A, long J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Beverly Hills, CA: Sage*, 136-162.
- Calvete, E. (2014). Emotional abuse as a predictor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adolescents: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depressive and social anxiety symptoms. *Child Abuse & Neglect, 38*(4), 735-746.
- Cohen, L. J., Tanis, T., Ardalan, F., Yaseen, Z., & Galynker, I. (2016). Maladaptive interpersonal schemas as sensitive and specific marker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ong psychiatric inpatients. *Psychiatry Research, 242*, 395-403.
- Cole, P. M., Llera, S. J., & Pemberton, C. K. (2009). Emotional instability, poor emotional awareness, and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4), 1293-1310.
- Crowell, S. E., Beauchaine, T. P., & Linehan, M. M. (2009). A biosocial developmental model of borderline personality: Elaborating and extending linehan's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35*(3), 495.
- Crystal, S. (2017). *The effect of emotional vulnerability and invalidation on emotion dysregulation in early adolescence: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Linehan's biosocial theor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Doctor's thesis). Seattle Pacific University, Washington, USA.
- Dixon-Gordon, K. L., Marsh, N. P., Balda, K. E., & McQuade, J. D. (2020). Parent emotion socialization and child emotional vulnerability as predictors of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8*(1), 135-147.
- Dobson, K. S. (2009). *Handbook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third e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Ebner-Priemer, U. W., Kuo, J., Kleindienst, N., Welch, S. S., Reisch, T., Reinhard, I., . . . Bohus, M. (2007). State affective instabilit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ssessed by ambulatory monitoring. *Psychological Medicine, 37*(7), 61.
- Frias, A., Palma, C., Farriols, N., Gonzalez, L., & Horta, A. (2016). Anxious adult attachment ma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10*(4), 74-284.
- Gilbert, F., & Daffern, M. (2013). The association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 and personality disorder traits in an offender population. *Psychology, Crime & Law, 19*(10), 933-946.
- Gratz, K. L., Tull, M. T., Baruch, D. E., Bornovalova, M. A., & Lejuez, C. (2008). Factors associated with co-occurri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ong inner-city substance

- users: The roles of childhood maltreatment, negative affect intensity/reactivity, and emotion dysregulation. *Comprehensive Psychiatry*, 49(6), 603-615.
- Gunderson, J. G., Morey, L. C., Stout, R. L., Skodol, A. E., Shea, M. T., McGlashan, T. H., . . . Yen, S. (2004).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revisited: Longitudinal interac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5(8), 1049.
- Harvey, P. D., Greenberg, B. R., & Serper, M. R. (1989). The affective lability scales: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5(5), 786-793.
- Koenigsberg, H. W., Harvey, P. D., Mitropoulou, V., New, A. S., Goodman, M., Silverman, J., . . . Siever, L. J. (2001). Are the interpersonal and identity disturbances in the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riteria linked to the traits of affective instability and impulsivit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4), 358-370.
- Lieb, K., Zanarini, M. C., Schmahl, C., Linehan, M. M., & Bohus, M. (2004).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Lancet*, 364(9432), 453-461.
- Linehan, M. M. (1993). *Skills training manual for treati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MacKinnon, D. F., & Pies, R. (2006). Affective instability as rapid cycling: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for borderline personality and bipolar spectrum disorders. *Bipolar Disorders*, 8(1), 1-14.
- Mairet, K., Boag, S., & Warburton, W. (2014). How important is tempera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yles,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social anx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ological Therapy*, 14(2), 171-190.
- Oliver, M. N., & Simons, J. S. (2004). The affective lability scales: Development of a short-form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6), 1279-1288.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aftery, A. E. (1995). Bayesian model selection in social research. *Sociological Methodology*, 25, 111-163.
- Siever, L. J., & Davis, K. L. (1991). A psychobiological perspective on the personality disorder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12), 1647-1658.
- Soloff, P. H., Lynch, K. G., & Kelly, T. M. (2002). Childhood abuse as a risk factor for suicidal behavior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6(3), 201-214.
- Speidel, R., Valentino, K., McDonnell, C. G., Cummings, E. M., & Fondren, K. (2019). Maternal sensitive guidance during reminiscing in the context of child maltreatment: Implications for child self-regulatory processes. *Developmental Psychology*, 55(1), 110.
- Thatcher, D. L., Cornelius, J. R., & Clark, D. B. (2005). Adolescent alcohol use disorders predict adult borderline personality. *Addictive*

- Behaviors*, 30(9), 1709-1724.
- Tragesser, S. L., Solhan, M., Schwartz-Mette, R., & Trull, T. J. (2007). The role of affective instability and impulsivity in predicting future BPD featur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1(6), 603-614.
- Trull, T. J., Solhan, M. B., Tragesser, S. L., Jahng, S., Wood, P. K., Piasecki, T. M., & Watson, D. (2008). Affective instability: Measuring a core feature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with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3), 647.
- Wolke, D., Schreier, A., Zanarini, M. C., & Winsper, C. (2012). Bullied by peers in childhood and borderline personality symptoms at 11 years of age: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3(8), 846-855.
- Wright, M. O., Crawford, E., & Del Castillo, D. (2009).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late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schemas. *Child Abuse & Neglect*, 33(1), 59-68.
- Yen, S., Shea, M. T., Sanislow, C. A., Grilo, C. M., Skodol, A. E., Gunderson, J. G., . . . Morey, L. C. (2004).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riteria associated with prospectively observed suicid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1(7), 1296-1298.
- Young, J.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Young, J., Klosko, J., & Weishaar, M.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 Guilford press.
- Zanarini, M. C., Frankenburg, F. R., Hennen, J., & Silk, K. R. (2003). The longitudinal course of borderline psychopathology: 6-year prospective follow-up of the phenomenolog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2), 274-283.
- 원고접수일 : 2020. 11. 25.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2. 13.
게재결정일 : 2021. 02. 16.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Maltreatment, Emotional Instabil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The Mediating Effect of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Seung-soo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Medical Center

Sung-Doo Won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Eun Jung Kim

This study examined whether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maltreatment, emotional instabil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 total of three hundred and sixty-six undergraduate students (163 male and 203 female) completed a battery assessing emotional maltreatment, emotional instability (ALS-SF),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YSQ-SF)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PAI-B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the mediation effect of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The results indicated that emotional maltreatment had a direct effect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Meanwhile, it had an indirect effect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that were mediated by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Emotional instability also had a direct effect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Concurrently, it had an indirect effect o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which was mediated by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In addition, a partial-mediation demonstrated a better model fit than the full-mediation model. By examining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and temperamental factors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was mediated by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the results of this study allow as to understand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Further, they highlight the importance of using a schema mode within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Key words : Emotional Maltreatment, Emotional instability,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